

또래도우미 활동의 자발성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권한나**

개화초등학교

이상연***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안성우****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또래도우미 활동의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장애학생 3명과 그 장애학생이 속한 3개의 통합학급 일반학생 각 16명씩을 실험집단1, 실험집단2, 통제집단으로 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측정을 위해 인승숙(2002)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또래도우미 활동은 장혜영(2011)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는 사전준비-사전검사-또래도우미 활동 적용-사후검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을 이용하여 t -test, 공변량분석(ANCOVA)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의 변화에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 자발성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래도우미 참여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하위영역별 장애학생 수용태도에서는 교제영역과 학습영역에서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 자발성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래도우미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영역에서는 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도우미 활동은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 자발성의 유무는 참여자의 선정기준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님을 밝혔고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또래도우미, 장애학생 수용태도, 또래도우미 활동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제1저자(hnsml@naver.com)

*** 교신저자(yi2525@hanmail.net)

**** 공동저자(swahn@pusan.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 밝히며 통합교육의 권리 또한 밝히고 있다. 이 법은 통합교육을 단순히 물리적 통합만을 통합교육이라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여 교수적 통합, 사회적 통합, 심리적 통합 등의 총체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이를 추구한다(이상호, 2013).

이에 따라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효과의 유지와 일반화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개선이다(이숙향, 1999). 태도란 어떤 종류의 사회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특유의 지속적인 반응 경향 또는 개인이 관련을 갖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주로 경험에 의해 체계화된 심적 준비상태를 말하는 것인데(김지영, 2008), 학령기 동안의 통합교육 경험은 일반학생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를 가지게 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장애학생의 교우관계나 또래 수용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독감과 거부,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모둠활동, 학업 등에 어려움을 주어 행동문제나 학교중퇴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De Boer et al., 2012). 이러한 관점에서 Nowicki와 Sandieson(2002)은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는 통합교육에 있어 핵심적 문제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Siperstein 등(2007)의 비장애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연구에 따르면 일반학생은 장애학생과 거의 접촉이 없고 장애정도가 경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등도 정도는 된다고 여기며 학업과 관련한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고 비학업적 활동만 참석이 가능하며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일반학생과 관련된 변인은 성, 연령, 지능지수, 장애 가족의 유무, 장애 아동에 대한 접촉 경험,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 있었다(장혜영, 2011). 이처럼 일반학생의 장애

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과 지원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고 장애학생 수용태도 향상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접촉경험, 즉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상호작용 경험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자연놀이, 전래놀이, 연극놀이, 협력놀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일반학생의 장애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권순미, 2005; 김수연, 1995; 김희진, 한진옥, 2004; 오승은, 2009; 이창우, 2011; 조성심, 2013)나 학급차원의 또래 지원망 프로그램(김지영, 2008; 박미혜, 2008; 박수진, 2005; 최지숙, 2014), 또래도우미 활동(강성구, 2005; 신인자, 2009, 허희선, 박승희, 2011) 등이 일반학생의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통합학습 지원 방법은 실제 교실 장면에서 일반학생이 장애학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장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련된 시간과 공간에서 간접적으로 장애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가 실제 통합학급과 사회적 장면에서 일반화되기 어렵고 그 지속성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주체가 되며 일회적 또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허희선, 박승희, 2011).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활동 가운데 또래도우미 활동과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래도우미 활동은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이 학급의 구성원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학습과 생활 등의 장면에서 조력활동을 하는 일반학생의 활동을 말한다(이상호, 2013). 이것은 통합학급 교실 안에서 일반학생을 장애학생의 중요한 지원자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김지영, 2008),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다른 통합학급 지원 방법들과는 달리 일반학생이 주체가 되어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장애학생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최대한 가까이 접촉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고, 적용 자체는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활동과 활동 범주가 일상생활 그 자체라는 점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일반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장애학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자세와 수용태도를 갖추게 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김지영, 2008).

또한 또래도우미 활동은 장애학생에게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장애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긍정적 자아개념과 정체감을 갖게 하며 인적 자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또래도우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또래도우미 활동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음을 밝혔다(박수진, 2005; 오선영, 2000; 이상호, 2013; 허희선, 박승희, 2011). 이 뿐만 아니라 또래도우미 활동은 장애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강성구, 2005; 김지영, 2008) 및 학교생활적응(박수진, 2005)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반학생에게도

장애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김희남, 2008)과 사회성(김미경, 2013)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또래도우미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동일하게 입증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는 자원을 받거나(김희남, 2008; 박세영, 2013), 전체 학생들 중 부담을 느끼는 일부 학생들은 제외하거나(신인자, 2009), 전체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김지영, 2008; 박미혜, 2008; 이상호, 2013; 장혜영, 2011; 허희선, 박성희, 2011)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정의 편리함 또는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희망자 일부나 특정 학생들, 또는 단순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도우미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고려 없이 또래도우미 활동의 효과 그 자체에만 주목하기도 하며 제한점을 드러내었는데 이것은 실제 현장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실질적 지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도우미 효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자발성의 유무에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변인이 되는 도우미활동 참여의 자발성 유무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서 또래도우미를 활용할 때 통합학급 내 일반학생들이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학생의 활동 자발성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해 자발적인 비지시적 수업이 지시적 수업보다 학습태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강광호(2003)의 연구와 자발적 학습조직이 비자발적 학습조직보다 학습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는 이은주(2007)의 연구 결과는 자발성이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일반학생의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의 자발성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도록 한다. 또한 이 같은 수용태도를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영역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De Boer et al., 2012; Siperstein et al., 2007)에서 언급한 일반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업적 능력에 대한 회의적 생각과 교제의 꺼림 등과 같은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학업과 교제가 주를 이루는 학교생활을 고려할 때 장애인식에 있어 실질적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도우미 활동에서의 일반학생 자발성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간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의 차이를 하위영역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또래도우미 활동에서 자발성이 변인으로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통합학급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또래도우미 대상자 선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간에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간에 하위영역별 장애학생 수용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장애학생 3명과 그 장애학생이 속한 3개의 통합학급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장애학생은 모두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장애의 유형은 다르지만 연구자가 장애의 정도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생활·이동·놀이에 필요한 지원수준 및 행동특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3학년 학생들이다. 장애학생은 3학년 각 반에 1명씩 속해 있으며 학생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

학급	연령	학년	성별	장애 유형	행동특성
A	만 9세	3	여	정신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 행동적 특성: 시력이 나쁘고 소근육 운동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 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함.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나 또박또박 말하려 노력하며 친구들이 대부분 듣고 이해할 수 있음. 성격적 특성: 매우 밝고 명랑하여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감. 교우관계: 시력이 나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스스로 함께 놀기를 포기하거나 친구들이 배제하는 경우가 많음. 학업수준: 2학년의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교실에서 하는 활동에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함.
B	만 10세	3	남	지체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행동적 특성: 상지의 왼쪽 편마비로 인해 손의 사용이 어려우며 시력이 나쁘고 면역력이 약하여 걷기와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은 없으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뛰기를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함. 성격적 특성: 밝고 쾌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의젓함.

<표 1> 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 (계속)

학급	연령	학년	성별	장애 유형	행동특성
B	만 10세	3	남	지체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우관계: 가정에서의 과잉보호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경험과 생활 경험은 부족한 편이며 또래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나 관계를 형성 방법이나 함께 노는 방법을 잘 모름. 학업수준: 3학년의 학습수준을 가지고 있고 성적도 중상위에 속하며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임.
C	만 9세	3	남	정서 행동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적 특성: 학습에서의 집중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ADHD 이고 수업 중 이해력을 요하는 과제나 활동과 학습지 및 준비물 관리 시 또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함. 성격적 특성: 자신감이 다소 부족함. 교우관계: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 학업수준: 3학년의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하고 기계적인 학습은 잘 하나 이해력이 부족하여 성취수준은 다소 낮은 편임.

장애학생이 소속된 통합학급은 모두 3학년이며 전체 3학급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입학 시기부터 한 학급에 1명씩 장애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해교육과 모의장애체험활동이 1년에 각 1회씩 총 2회, 2년 동안 이루어진 상태로 3학급 모두 전반적으로 장애학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실험 실시 전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내용과 같은 구조적인 또래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모두 없었다.

3개의 통합학급은 무작위로 실험집단 2학급과 통제집단 1학급으로 나누었으며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A학급과 B학급 일반학생들에게는 학기 초 장애인해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또래도우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활동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다. 3개의 통합학급에 관한 정보와 학급별 또래도우미 활동 희망여부는 <표 2>와 같다.

<표 2> 통합학급 정보 및 또래도우미 활동 희망여부

학급	A학급	B학급	C학급
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일반학생	남 : 12명	남 : 13명	남 : 12명
구성	여 : 11명	여 : 12명	여 : 11명
장애학생	여 : 1명	남 : 1명	남 : 1명
또래도우미	희망함 : 6명	희망함 : 10명	조사하지 않음
희망여부	희망하지 않음 : 18명	희망하지 않음 : 16명	

학급과 상관없이 자발성 유무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질 A, B학급의 또래도우미 희망 학생 수는 각각 6명과 10명이었으며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의 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각 반에 비자발적 또래도우미를 해당인원만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의 인원수는 각 16명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총 48명의 일반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급과 상관없이 구성된 3개의 집단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처치없음 집단
참여인원	총 16명		총 16명		16명
인원구성	A학급	B학급	A학급	B학급	전체 학급 인원 중 무작위로 선정
	6명	10명	6명	10명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또래도우미 활동의 자발성이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험집단인 집단 1과 집단 2는 사전검사-실험처치-사후검사를, 통제집단인 집단 3은 사전검사-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R	실험집단	R ₁	O ₁	X	O ₂
		R ₂	O ₁	X	O ₂
	통제집단	R ₃	O ₁		O ₂

R ₁ : 집단1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O ₁ : 사전검사
R ₂ : 집단2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X : 실험처치 (또래도우미 활동)
R ₃ : 집단3 (처치없음 집단)	O ₂ : 사후검사

3. 연구 도구 및 중재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부민(1997)이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하고 이민주(2001)가 사용한 설문지를 영역은 그대로 두고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수정·보완한 안승숙(2002)의 설문지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3학년임을 고려하여 낱말이해수준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장을 기술하였다.

설문지는 생활 장면에서 따라 3개 하위영역 즉, 교제영역, 생활영역, 학습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 당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영역별 총점의 범위는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이며, 전체 총점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전체 총점이 높을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하위 영역별 총점 비교를 통하여 하위 영역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정된 척도의 문항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α .84로 신뢰도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 및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장애학생 수용태도 설문지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계수
교제	장애학생을 친구로 수용가능한 정도	3	.74
	장애학생을 친구로 사귀고 싶은 마음	3	
	장애학생에 대한 호감 정도	3	
생활	장애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	3	.69
	장애학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3	
	친구하고 싶은 마음	3	
학습	학습 시 장애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	3	.93
	장애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	3	
	장애학생의 학습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3	
전체		27	.84

2) 또래도우미 활동

본 연구는 또래도우미 활동 적용에 앞서 장애학생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원을 예방하고 또래도우미 학생들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래도우미 지원 항목

을 선정하였다. 지원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김지영(2008)이 통합학급 도우미 지원 형태에 따른 수용태도 변화 연구를 참고하여 특수교사와 통합교사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특성과 그들이 속한 통합학급의 실정에 맞게 영역별 지원내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또래도우미 활동 내용과 절차는 김희남(2008)이 제작하고 장혜영(2011)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또래도우미 활동 내용

영역	내용
개인적 욕구 지원	외투, 실내화 관리 도와주기 식사 및 간식 돕기 문제행동 제지 및 관리 화장실 이동 동행 및 이용 지원
건강보호 및 안전지원	건강상태 확인 및 약복용 관리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별실 이동 동행 야외활동이나 현장학습 시 동행 및 안전보호 건강 또는 안전문제 알리기
상호작용 지원	당번활동 및 청소활동 함께하기 또래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함께 놀이하기
교수적 지원	수업시간 교과서 및 준비물 준비 확인 알림장 쓰도록 안내하기 및 작성 돕기 필기한 내용 보여주고 도와주기 착석지도

또래도우미 활동은 학급에 따라 6주와 10주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학기 중반으로 갈수록 장애학생과의 접촉경험이 물리적으로 많아지면서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다.

실험집단에 적용된 또래도우미 활동은 또래도우미 사전교육-또래도우미 활동-도우미 일지 기록-교사의 피드백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중점이 자발성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있으므로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에게는 동일한 또래도우미 활동이 적용되었다. 시작에 앞서 전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자발성 유무에 따라 자발적 또래도우미 2인을 1조,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2인을 1조로 조편성하였다. 또래도우미를 2인 1조로 구성한 이유는 또래도우미의 역할이 개인적 욕구지원, 건강보호 및 안전지원, 상호작용 지원, 교수적 지원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담과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자발적 또래도우미와 비자발적 또래도우미를 한 조로 구성할 경우 자발적 또래도우미의 적극성으로 인해 비자발적

또래도우미가 충실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유형의 또래도우미를 한 조로 구성하였다.

시기별로는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학생들에게 심적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자발적 또래도우미 학생들의 적극적 활동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모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발적 또래도우미 조가 가장 먼저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3학년 학생 들임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학생들이 앞 주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관찰하고 바로 모방해 볼 수 있도록 자발-비자발의 순서로 번갈아가며 실시하였다.

시기별 조 편성과 상세 인원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전체 또래도우미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학생들이 이전에 또래도우미 활동을 한 경험이 없고 저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 라는 어감이 일반학생들로 하여금 장애 학생을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 로써 여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또래도우미’ 가 아닌 ‘어깨동무 친구’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교육하였다. 전체 또래도우미 사전 교육의 간략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전체 또래도우미 사전교육 내용

단계	학습내용	시간(분)	자료
도입	◇ 또래도우미 활동 사례 동영상시청	10	동영상
전개	◇ 또래도우미의 의미와 필요성 알기 ◇ 또래도우미의 역할과 지원방법 알기 ◇ 또래도우미 활동 시 주의점 안내 ◇ 또래도우미 활동과정 안내 ◇ 또래도우미 활동 문제시 대처방법 안내 ◇ 또래도우미 활동 후 모습 상상하기	25	PPT, 전체 활동안내서
정리	◇ 어깨동무친구 목걸이 활용 안내 ◇ 세부교육일정안내	5	PPT, 어깨동무 친구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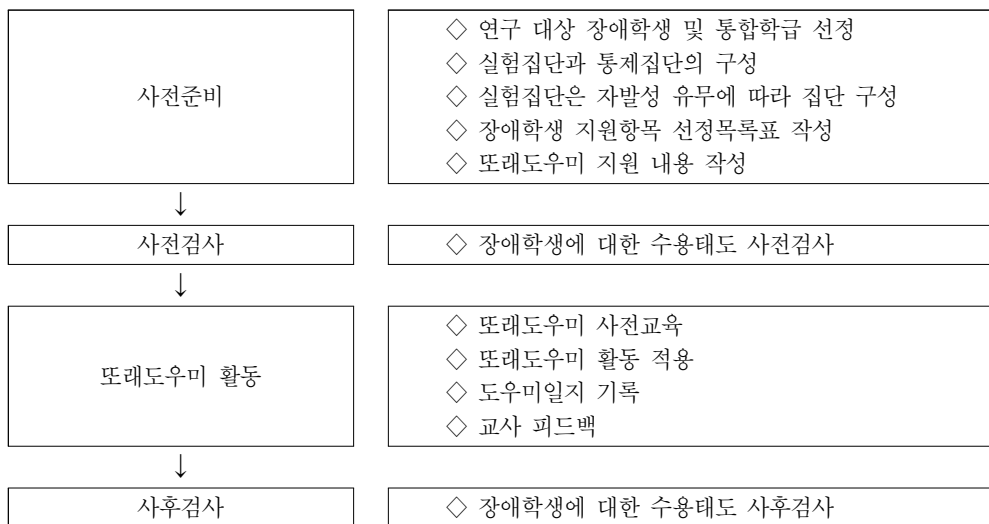
전체 사전교육 후 매주 이루어진 세부교육은 이번 주에 활동할 또래도우미 2명을 대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특수학급에서 1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활동할 내용과 도우미 일지 기록, 소감문 작성 등에 대한 재 안내와 함께 어깨동무친구 목걸이를 배부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매 시간 또래도우미 활동 내용을 확인하면서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도우미 일지는 매일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확인을 받고 제출하였으며 활동이 끝나는 주 금요일 오후에는 소감문 작성 및 특수교사와의 면담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칭찬 및 격려의 피드백도 함께 제공하였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또래도우미 활동의 자발성이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준비-사전검사-또래도우미 활동 적용-사후검사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사전검사는 또래도우미 활동 적용 일주일 전에 일괄적으로 실시되었고 사후검사는 또래도우미 활동이 끝나는 금요일 오후 특수교사와의 면담시간 전에 실시되어 사전검사와는 달리 각 조별로 각각 이루어졌다. 통제집단 또한 동일하게 전체 16명을 2명씩 8조로 구성하여 조별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5.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별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하고 사후검사 결과를 공변량분석(ANCOVA) 하였으며,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6. 중재충실도

또래도우미 활동을 일반학생들이 충실하게 실행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매주 각 조의 또래도우미 활동이 끝난 후 해당 조의 일반학생 2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영역은 장애학생의 개인적 욕구지원, 건강보호 및 안전지원, 상호작용 지원, 교수적 지원, 기타이며 각 영역 당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당 점수는 실행여부에 따라 2점(매우 그렇다), 1점(그렇다), 0점(그렇지 않다)을 부여하였으며 각 영역 당 총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의 사이에 분포한다. 자발적 또래도우미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의 중재충실도는 두 집단 모두 91.3%로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과 같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학생의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

또래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측정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사전 수용태도 검사 점수는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 장애학생 수용태도 검사 점수는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또래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두 집단은 사전보다 사후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검사 점수가 상승하였는데,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은 평균 5.69점 상승하였으나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2.44점 상승하여 장애학생 수용태도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통합학급 지원 활동이 주어지지 않은 통제집단은 사후 검사 점수가 오히려 4.62점 하락하였다.

<표 8>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 검사 기술통계량

구분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6	102.25	17.36	107.94	18.76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6	86.00	33.06	98.44	27.95
통제집단	16	92.06	19.72	87.44	20.15

자발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용태도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사전검사 점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세 집단의 수용태도 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_{(2,44)}=17.70, p<.001$).

<표 9>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후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23668.12a	3	7889.37	124.30
사전검사	20300.12	1	20300.12	319.83
집단구분	2247.06	2	1123.53	17.70***
오차	2792.68	44	1123.53	
합계	486865.00	48		
수정합계	26460.81	47		

*** $p<.001$

a R 제곱=.89(수정된 R 제곱=.88)

각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의 평균차는 4.6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는 11.62($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통제집단도 평균차 16.28($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또래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실험집단 내에서는 참여 자발성 유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비교

(I)	(J)	교정된 평균차(I-J)	표준오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4.65	2.92
	통제집단	11.62***	2.86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4.65	2.92
	통제집단	16.28***	2.83
통제집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1.62***	2.86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6.28***	2.83

*** $p<.001$

2. 일반학생의 하위영역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

1) 일반학생의 전체 하위영역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 집단 간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 차이를 생활 장면에 따라 세 가지 하위영역인 교제·생활·학습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전체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전체 일반학생들의 하위영역별 사전검사 평균점수는 학습영역, 교제 영역, 생활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별 사전검사 결과에서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높은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보였다. 이 가운데 통제집단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가 전체 일반학생의 평균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표 11> 전체 하위영역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 검사 기술통계량

하위영역	집단구분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제	자발적 또래도우미	33.13	6.90	34.00	7.91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29.31	10.81	31.88	11.94
	통제집단	31.19	6.75	27.69	7.09
	전체(N=48)	31.21	8.34	31.19	9.41
생활	자발적 또래도우미	32.31	6.18	33.63	8.03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26.56	10.92	30.06	9.97
	통제집단	28.81	7.72	29.25	6.56
	전체(N=48)	29.23	8.66	30.98	8.35
학습	자발적 또래도우미	36.19	5.24	40.31	5.00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30.00	11.98	35.31	9.22
	통제집단	35.75	16.74	31.13	7.48
	전체(N=48)	33.98	12.33	35.58	8.21

2) 교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

교제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하위 내용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표 12>와 같고 교제영역에서 자발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수용태도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교제 영역에서 세 집단의 수용태도 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44)}=4.41, p<.05$).

<표 12> 교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 검사 기술통계량

집단구분	N	교제영역 하위내용	평균점수		평균차 (J-I)
			사전(I)	사후(J)	
자발적 또래도우미	16	친구로 수용 가능한 정도	11.32	11.81	+0.49
		친구로 사귀고 싶은 마음	11.00	11.13	+0.13
		호감정도	10.81	11.06	+0.25
		전체	33.13	34.00	+0.87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16	친구로 수용 가능한 정도	10.73	11.21	+0.48
		친구로 사귀고 싶은 마음	9.79	10.58	+0.79
		호감정도	8.79	10.09	+1.30
		전체	29.31	31.88	+2.57
통제집단	16	친구로 수용 가능한 정도	10.71	9.25	-1.46
		친구로 사귀고 싶은 마음	10.08	9.38	-0.70
		호감정도	10.40	9.06	-1.34
		전체	31.19	27.69	-3.50

<표 13> 교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후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2666.75	3	888.91	26.06
사전검사	2336.62	1	2336.62	68.51
집단구분	301.355	2	150.67	4.41*
오차	1500.55	44	34.10	
합계	50855.00	48		
수정합계	4167.31	47		

* $p<.05$

a R 제곱=.64(수정된 R 제곱=.61)

각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통제 집단은 평균차 4.64($p<.05$)로,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통제집단도 평균차 5.80($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은 평균차 1.1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또래도우미 활동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교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또래도우미 활동의 자발성은 실험집단 내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표 14> 교제영역에서의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비교

(I)	N	(J)	교정된 평균차(I-J)	표준오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6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15	2.10
		통제집단	4.64*	2.07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6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1.15	2.10
		통제집단	5.80*	2.07
통제집단	16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4.64*	2.07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5.80*	2.07

* $p < .05$

3) 생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

생활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하위 내용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표 15>와 같고 생활영역에서 자발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수용태도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 결과는 <표 16>과 같다. 생활영역에서 세 집단의 수용태도 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_{(2,44)}=1.50, p < .05$).

<표 15> 생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 검사 기술통계량

집단구분	N	생활영역 하위내용	평균점수		평균차 (J-I)
			사전(I)	사후(J)	
자발적 또래도우미	16	돕고 싶은 마음	11.31	11.44	+0.13
		함께하고 싶은 마음	10.63	10.88	+0.25
		친구하고 싶은 마음	10.37	11.31	+0.94
		전체	32.31	33.63	+1.32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16	돕고 싶은 마음	9.88	10.00	+0.12
		함께하고 싶은 마음	8.69	9.43	+0.74
		친구하고 싶은 마음	7.99	10.63	+2.64
		전체	26.56	30.06	+3.50

집단구분	N	생활영역 하위내용	평균점수		평균차 (J-I)
			사전(I)	사후(J)	
통계집단	16	돕고 싶은 마음	10.13	10.81	+0.68
		함께하고 싶은 마음	9.37	9.19	-0.18
		친구하고 싶은 마음	9.31	9.25	-0.06
		전체	28.81	29.25	+0.44

<표 16> 생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후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2442.69	3	814.23	42.73
사전검사	2269.40	1	2269.40	119.11
집단구분	57.50	2	28.75	1.50
오차	838.28	44	19.05	
합계	49347.00	48		
수정합계	3280.97	47		

* $p < .05$

a R 제곱=.74(수정된 R 제곱=.72)

4) 학습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

학습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하위 내용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표 17>과 같고 교재영역에서 자발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수용태도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 결과는 <표 18>과 같다. 학습영역에서 세 집단의 수용태도 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2,44)}=10.28, p < .001$).

<표 17> 학습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 검사 기술통계량

집단구분	N	학습영역 하위내용	점수		평균차 (J-I)
			사전(I)	사후(J)	
자발적 또래도우미	16	학습을 돕고 싶은 마음	11.76	14.00	+2.24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	10.88	12.63	+1.75
		학습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13.55	13.68	+0.13
		전체	36.19	40.31	+4.12

<표 17> 학습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전-사후 검사 기술통계량 (계속)

집단구분	N	학습영역 하위내용	점수		평균차 (J-I)
			사전(I)	사후(J)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16	학습을 돕고 싶은 마음	10.26	12.13	+1.87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	9.21	11.00	+1.79
		학습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10.53	12.18	+1.65
		전체	30.00	35.31	+5.31
통제집단	16	학습을 돕고 싶은 마음	11.98	10.38	-1.60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	10.83	9.50	-1.33
		학습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12.94	11.25	-1.69
		전체	35.75	31.13	-4.62

<표 18> 학습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후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1694.77	3	564.92	16.87
사전검사	1017.73	1	1017.73	30.40
집단구분	688.26	2	344.13	10.28***
오차	1472.88	44	33.47	
합계	63944.00	48		
수정합계	3167.66	47		

*** $p < .001$
a R 제곱=.53 (수정된 R 제곱=.50)

각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는 <표 19>와 같다.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은 평균차 2.60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통제 집단은 평균차 9.01($p < .001$),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통제 집단은 평균차 6.41($p < .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9> 학습영역에서의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비교

(I)	(J)	교정된 평균차(I-J)	표준오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2.60	2.09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9.01***	2.04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2.60	2.09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제집단	6.41*	2.08
통제집단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9.01***	2.04
통제집단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6.41*	2.08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도우미 활동의 자발성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과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 통합학급 지원이 주어지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의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의 자발성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에 따른 집단 간의 수용태도 변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도우미 활동이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향상시킨 결과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지영(2008)의 연구 결과와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장혜영(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미영(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집단 학생들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약 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또래도우미 활동이 통합학급 지원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해 줌과 동시에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학급 지원은 필수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 긍정적 수용태도나 교우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Pijl, 2005; De Boer et al., 2012에서 재인용) 오히려 일반학생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거나 이전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음(박미혜, 2008)을 명백히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설정한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의 자발성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여러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 참여 학생은 이미 장애학생을 도우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검사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수용태도가 이미 높게 나타난 천정효과를 보이고 있어 사후검사에서 그 향상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사에서 점수의 향상을 보인 결과는 장애학생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Nowicki와 Sandieson(2002)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의 자발성에 관계없이 또래도우미 활동은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장애학생 수용태도 사후검사 결과 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의 평균 상승률이 5.6%인데 비해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집단의 상승률이 14%라는 점과 통제집단은 오히려 점수가 감소한 결과로 뒷받침된다. 또래도우미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으나 참여가 강요된다면 무성의함이나 더 부정적 인식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보다 더 높은 향상을 보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태도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의 부족, 적절한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와 관련해 박미혜(2008)는 학급차원의 또래 지원이 장애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거의 어울리지 않았으나 학급차원의 구조화된 또래 지원망 프로그램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은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더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학생에 대해 더욱 수용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owicki와 Sandieson(2002)도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더 수용적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일반학생의 장애학생과의 올바른 관계경험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편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의 자발성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현장에서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 도우미 선정에 있어 활동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참여시켰을 때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모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교사의 편이나 일반학생의 봉사정신, 배려 깊은 성품, 장애학생에 대한 호감 등에 따라 소수의 일반학생을 선정하여 참여시켜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자발성의 유무가 가져올 장애인식과 관련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전체가 또래도우미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김지영, 2008; 박미혜, 2008; 최지숙, 2014)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일반학생의 하위영역별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생활장면에 따라 나누어진 교제·생활·학습영역 중 교제영역과 학습 영역에서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의 자발성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또래도우미 활동 참여에 따른 집단 간의 수용태도 변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영역에서는 세 집단 간 장애학생 수용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도우미 활동의 효과가 생활영역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영역과 학습영역에 또래도우미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또래도우미 활동이 학습영역의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향상시켰다는 김지영(2008), 장혜영(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학급 차원의 또래 지원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과의 친구관계를 향상시켰다는 박미혜(2008), 오선영(2000), 장혜영(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생활영역에서 또래도우미 활동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장혜영(2011)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학생의 다양한 생활범주 모두에서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또래도우미 활동의 효과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학생이 또래도우미 활동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상호작용한 영역인 교제나 학습영역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여가생활과 같이 확장된 생활 범주까지 포함하여 측정된 생활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학교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모두 이해하거나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장면이나 상황과 관련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는 증가하였으나 그것을 확장하여 일반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확장된 생활 범주까지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적용이나 또는 다른 효과적인 통합학급 지원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통합교육을 통해 형성한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다양한 생활 장면에까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다양한 통합학급 지원방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동안 이루어진 또래도우미 활동을 통해서도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습영역과 교제영역에서의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결과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거나 이전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잘 구조화된 또래도우미 활동은 참여 자발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긍정적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비자발적 또래도우미 학생들은 낮은 장애학생 수용태도와 비자발성으로 인해 처음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정해진 활동만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작용의 빈도와 범위가 넓어졌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에는 또래도우미 활동 과정에 작성하도록 한 또래도우미 일지와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충재충실도 점검 등과 같은 교사의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은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의 충실성을 높였고 결국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진정한 통합교육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잘 계획되고 구조화된 환경이나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이 필수적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겠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의 실천은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이루어가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시의 한 초등학교 통합학급 3학급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령기 학생들에게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연구 대상의 양적·질적 다양성을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하길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도우미 활동이 단기간 실시되어 후속 연구는 장기적인 또래도우미 활동

의 효과를 검증하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또래도우미를 통해 형성된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또 다른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인 또한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광호 (2003). 지시적·비지시적 수업이 중심생각 찾기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성구 (2005). 생활도우미활동이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2(2), 133-160.
- 교육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교육부.
- 권순미 (2005). 통합환경에서 협력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유아의 사회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경 (2013). 또래교수가 또래교사와 수학학습부진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연 (1995). 통합된 놀이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영 (2008). 통합학급 도우미 지원형태에 따른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변화.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남 (2008). 통합학급에서 또래 도우미활동이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희진, 한진옥 (2004). 전래놀이활동 프로그램이 통합학급 유아들의 장애유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9(1), 152-170.
- 박미혜 (2008). 학급 차원의 또래 지원망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과의 친구관계와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세영 (2013). 통합학급 도우미 지원 형태가 장애학생의 또래 지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수진 (2005). 또래지지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와 수용성 및 정인지체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인자 (2009). 특수교육대상자 도우미학생의 도우미 활동.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승숙 (2002). 특수학급교사와 통합학급교사 간 협력 정도와 일반아동의 장애아 수용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선영 (2000). 또래지원망 프로그램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

-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승은 (2009). 통합연극놀이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미영 (2014). 또래도우미 활동 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상호 (2013). 통합학급에서 또래도우미 활동이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숙향 (1999). 학급 내 가치 있는 역할부여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은주 (2007). 자발적 학습조직 활동이 개인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학습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창우 (2011). 통합 자연놀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혜영 (2011). 통합학급내의 또래도우미 활동이 일반아동의 정서능력 및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성심 (2013). 통합교실에서 주제 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 최지숙 (2014). 장애학생과의 학급차원 또래교수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희선, 박승희 (2011). 학급차원의 또래도우미 활동 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과의 친구관계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0(1), 155-186.
- De Boer, A., Pijl, S. J., & Minnaert, A. (2012). Students attitudes towards peers with disabilit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 Education*, 59(4), 379-392.
- Nowicki, E. A., & Sandieson, R. (2002). A meta-analysis of school-age children's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physical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49(3), 243-265.
- Siperstein, G. N., Parker, R. C., Bardon, J. N., & Widaman, K. F. (2007). A national study of youth attitudes toward 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73(4), 435-455.

The Effects of Peer Supporter Activities According to Spontaneous on the Accommodate Attitude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n Na Kwon

Kaehwa Elementary School

Sang Yun Lee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ng Woo Ahn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peer supporter activities on the accommodate attitude of children with disa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48 students, 3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Busan and 16 normal students in the three integrated classes that the above disabled students were includ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such as experimental group 1, experimental group 2, and control group. To measure normal students' accommodate attitude toward disabled students, the questionnaire of Ahn Seungsuk(2002) was modified to use and peer supporter activities that Jang Hyeyoung(2011) had used were corrected to use for this study. The research was made up of preparation-pretest-applying peer supporter activity-post test in ord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for window 21.0 program with *t*-test, ANCOV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change of accommodate attitude of disabled students among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participate in peer supporter activities voluntarily or not, whil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tion group in peer supporter activities and control group. Secon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ssociation area and learning area,

subarea of disabled students' accommodation attitudes, among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participate in peer supporter activities voluntarily or not, whil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tion group in peer supporter activities and control group and no differences in living area among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peer supporter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s on normal students' accommodate attitude and whether they participate in peer supporter activities voluntarily or not should not be considered for selection standard. Also, all members of the school need to try and participate for the integrated education.

Key Words : Peer supporter, accommodate attitude of children with disability, peer supporter activities

<부록> 또래도우미 활동 충실도 체크리스트

○학년 ○반 통합학급 담임교사 _____ (인)

지원대상학생	○○○	지원기간	○월 ○일 ~ ○월 ○일
또래도우미 조	○조	도우미이름	○○○, ○○○

영역	문항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1)	그렇지 않다 (0)
개인적 욕구 지원	1. 외투를 벗거나 실내화를 신는 것을 잘 확인하였습니까?			
	2. 배식 및 퇴식을 도와주었습니까?			
	3. 우유급식을 챙겨주고 함께 정리하였습니까?			
	4. 화장실에 함께 다녀오고 챙겨주었습니까?			
	5. 기타 개인적 욕구를 충실하게 지원하였습니까?			
건강 보호 및 안전 지원	1. 친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2. 특별실, 강당, 학습 도움실 등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3.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챙겨주었습니까?			
	4. 야외활동이나 현장학습 시 짝이 되어 지원적으로 활동하였습니까?			
	5. 기타 건강 및 안전관련 지원을 충실하게 하였습니까?			
상호 작용 지원	1. 당번활동을 함께 도와주며 하였습니까?			
	2. 쉬는시간, 점심시간 시 함께 놀이를 하였습니까?			
	3. 친구들과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였습니까?			
	4. 모둠활동 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였습니까?			
	5. 짝이되어 상호 지원적으로 생활하였습니까?			
교수적 지원	1. 학습도움실에 갈 때 책을 가져가도록 챙겨주었습니까?			
	2. 통합학급 학습 시 친구를 잘 도와주었습니까?			
	3. 준비물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었습니까?			
	4. 수업시간에 맞는 교과서를 꺼내도록 도와주었습니까?			
	5. 체육, 음악, 미술시간에 준비물을 잘 챙겨 이동하였습니까?			
기타	1. 또래도우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하였습니까?			
	2. 장애학생에게 다가가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 되었습니까?			
	3.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4. 장애학생을 돕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5. 장애학생을 친구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